



反민족 범죄 바로 잡는 계기

‘반민족문제 연구소’의 설립 의의와 과제

출간은 비단 학문적인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데도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임선생의 연구가 집대성되고 더욱 깊이 연구되기를 바라면서, 후학들이 이 연구를 이어 계속적으로 자료를 보존하고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강만길(고려대·한국사교수)

정도로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반민족문제연구소 출범의 의의는 이전까지 체계적이지 못했던 친일파에 대한 연구를 임선생의 연구자료와 같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할수있는 연구소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 연구소에서 친일파에 대한 연구를 해 나갈으로써 그간 지배 세력이 친일파를 비호한 결과로

까지는 문학사화사를 연구해오다가 65년도 한일회담의 시작을 전후로 하여 반민족적인 친일파를 한 자들이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오�히려 버섯이 민족주의자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은 더는 것을 깨닫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후 66년 '친일문학론'에서는 해방이후에도 우리 문단을 주

일선설립'을 차례로 발간하는 과정에서 친일파의 기조적인 체계를 세우려 노력하는 한편, 총체적 측면에서 친일파의 행적을 파헤치기 위해 '친일파 총서(전 10권)'를 펴내는 등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88년 '일본군의 조선침략사'를 내놓은 이후 94년 완간 계획으로 친일파총서 10권중 '총론', '사상정책과 친일파', '해방이후' '친일파'등 4권의 집필을 준비하던 도중 지방과 싸우다 89년 타계했다.

본보에 게재되었던 시리즈 마지막 편에서 "아시아의 바다에서는 지금 태평양을 건너온 물결이 높고 바이칼호를 건너온 물결이 차다. 이러한 기상변화는 일어나는 것은 '신간성'에서 파시되였던 민족적 통일역량을 회복하는 일이다. 정신적 38선의 철폐 없이는 지도상의 분단선이 철폐되지도 않으며, 민족수도도 개급수도도 철폐될 수 없을 것"이라고 민족 소신을 강조했다.

Ⅱ. 반민족문제연구소의 설립의의

현재 반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는 일부 연구자들의 열성적 연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수준이 자료의 소개, 나열 및 인물에 대한 친 일내력에 머물고있다.

따라서 반민족문제연구소는 반 민족행위의 구조와 논리를 알려 넘으로써 근현대사를 이어나 친 일세력과 그 야합세력들의 반민 족적 작태를 폭로하여 민족의 가치 체계를 확고히 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친일행위에 대한 민족의 항쟁을 정확히 알려내며 친일에 이은 친미의 유행을 파악하고 본질을 규명해야 한다. 그리고, 일 본의 제국주의화와 미국의 침략 적 정책을 근본적으로 파헤쳐내 야 한다.

나아가 남북분단의 모습을 민족통일정당화에서 연구하고 반민족행위를 타파해야 한다.

이와같은 연구의 과제들은 일부 또는 단시일내에 이루어질수 는 없는 문제로, 이 과정은 여론 과 법에 의해 심판받아야 하며 민족정통성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Ⅲ. 앞으로의 과제

"우리가 통일없이 살수 없다면, 그 전체인 일제 잔재의 청산과 정기의 회복이야말로 우리민족의 생존의 최대가 되는 것이다"는 임선생의 말이 가르키듯이 우리는 올바른 사상의 토대위에서 일 어나야한다. 친일파에 대한 단죄 는 민족의 혼을 되살리는 사업이 며, 반민족문제 연구소 역시 이런 맥락에서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임선생은 죽는날까지 서재에서 정리한 카드와 자료속에서 살겠 노라 말했다. 그의 그러한 신념을 이어 받은 연구소가 민족의 혼을 찾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지 않는다면 '친일'의 골때는 벗어날 것이 며 민족반역자에 대한 단죄와 역 사적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이희환 記者)

학술(學) (9)

제6회 농업문제 강좌 농어촌연구소 21일까지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주최 '제 6회 농업문제 강좌'가 지난 2월28일부터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에서 9시30분까지 봉천 10동 874-13(3층)에서 오는 3월21일 까지 계속된다.

'농어촌발전 종합대책과 농민'에 대해 이영일씨가 발표 하는

오는 강좌는 농업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생, 일반시민이면 참석할 수 있다. (문의:885-1607)

민족불교학당 오늘부터 매주 월·목 화요일 밤 9시

제4기 '민족불교학당'이 민족자 주·통일 불교운동의 일환으로 주최로 오늘부터 4월21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오후 7시30분에 열린다.

진정한 깨달음을 추구하며, 불 교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 는 사람을 위해 개최되는 이 강좌는 오늘까지, 입학원서 접수를 마감한다.

오늘 지선스님의 '민족과 불교' 강연을 시작으로 3월14일에는 '연 락선상과 민주언론'을 권영길씨가 발표한다.

▲3월18일:이명의 도덕성 회복 을 위하여 (이문옥)

▲3월21일:불교의세계관 (최석 호)

▲3월24일:민족사의 성지를 찾 아서 (성지순례)

▲3월25일:불자의 생애와 사상 (월문스님)

▲3월28일:한국경제의 구조와 동요 (강성호)

(문의 764-9656)

민족혼 되찾기 위한 노력의 결실 미제·친미의 본질규명에 주력해야

김봉우(본교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의 노력과 그간의 임선생의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설립된 반민족문제연구소 개소식에 는 한겨레신문사 대표 송진호 지 도위원은 "임선생의 '친일문학론' 비롯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실경과보고, 소장의 개소인 사, 지도위원의 소개등으로 이루어진 이날 개소식에서 송진호 지 도위원은 "임선생의 '친일문학론' 지도위원은 "식민지 시기에 우리 에게 뿌려내린 반민족적인 요소 들을 들추어내려 했던 임선생님 의 연구 업적을 높이 사하고 있다" 고 말하며 친일파에 대한 연구에 동원한 우리의 역사는 진

정도로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반민족문제연구소 출범의 의의는 이전까지 체계적이지 못했던 친일파에 대한 연구를 임선생의 연구자료와 같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할수있는 연구소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 연구소에서 친일파에 대한 연구를 해 나갈으로써 그간 지배 세력이 친일파를 비호한 결과로

3. 故 임종국선생 업적
故 임종국 선생은 1965년 이전

도했던 소위 원로급 문인들의 친 일행위를 적나라하게 폭로하였다. 이 당시 정권의 그늘에 있던 이 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였 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그 이후 임선생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문화, 예술등 사회전반에 걸쳐 친일문제에 대 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갔다. 연구방법은 철저한 자료조사를 통한 실증적 고찰의 방법을 택하 고 개인별로 신상카드를 작성하 여 친일내역을 정리하였다.

80년대에는 왕성한 집필력을 발휘하여 '일제침략과 친일파', '밤의 일제침략사', '일제하의 사 상탄압', '친일문학 작품선집', '친

출판 화제

김종희 역음 '불우물 조선처녀'

민족정서의 새로운 창

89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이라는 거대한 사회주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높아 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서 중국 에 살고 있는 조선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대학생들도 대부분의 해 외연수를 유럽의 동구권과 중국 으로 떠나는 등 사회주의 나라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나온 소설 '불우물 조선 처녀'는 독자들이 종래에 느꼈던 중국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들을 어느정도 풀어줄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의 구성을 보면 문화비평 가 김종희(동문, 국문74)씨가 중 국을 방문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서술한 '신연행록'이라는 기행문이 앞부분에 실려있고 뒷부 분은 중국 연변자치구, 조선족 작 가의 소설 가운데 중편 4편, 단편 6편을 선별하여 구성해 놓고 있 다.

책을 엮은 김종희씨는 이 책에 서 "중국의 동북 3성, 특히 연변 조선족자치주에는 우리말이 일상 어로 통용되고 있을뿐 아니라 우 리말로 활발한 문예창작이 이루

어지고 있다. 우리가 오래전에 유 실한 민족 공동체의 생활관습들 도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으며 이 와 같은 문화현상을 직접 목도하 는 일은 하나의 충격이자 비결에 없는 감동이었다"고 소감을 밝히 며 "이 10편의 소설이 민족적 정 서의 새로운 터전을 확인하고 이 해하며 더 나아가 반민족적 문화 의 전말을 설정하는데 유익

있는 여러가지 모습들을 보여준 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전시로부 터 사회주의 정권수립까지의 중 국의 시대사와, 그 속에서 살아 가 는 '민족'의 자리찾기에서 얻어낸 고통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추측해 낼 수 있다.

또한 '불우물'과 '청춘락전', '선 보려하는 날'은 사회주의 국가에



이 책에 실린 글중 친한 민족 성을 표출하고 있는 간지생의 '퇴 색한 사진'은 다수의 조선족이 저 수지 확장공사에 만공대로 참가 하게 되면서 유숙하게된 일제의 안 거인이 조선족임을 자차 일제에 는 파정속에서 한동족으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상에 본 바와 같이 기행문 소설로 구성되는 이책은 역은이

조선족 삶의 원형 표현된 소설 동질성 새터전 형성할 계기로 작용

한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다"라고 책을 엮은 목적에 대해 밝히고 있다.

중국 조선족의 소설들을 살펴 보면 조선족이 처한 사회적 여건 과 활동양식, 그리고 그들의 배후 에 자리한 중국의 사회적 현상이 눈에 들어온다. 김학철의 중편소 설 '반역자'에서는 항일무장투쟁 시기부터 2차대전 후까지의 시 대적 배경속에서 '방대평'이라는 일제적 인물을 등장시켜 격변하 는 사회를 통해 인간이 취할 수

서의 인민들의 사랑이야기를 그 리고 있다. '불우물' 주인공(교수) 이 사랑하는 여인(선술집주인)과 이 신분차이 때문에 결혼을 주저 하는 모습에서는 봉건적 생활양 식의 잔재가 적나라하게 나타난 다. 또한 '청춘락전'에서는 주인공 이 좋아했던 한 여인과의 결별후, 계속적으로 돈을 벌게되고 나중 에는 보란듯이 그녀 앞에서 약 혼식을 올리는 행동양식에서 자 본주의 침투후 변화하는 사회주 의 국가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의 말대로 민족적 정서의 새로운 터전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 할 것이다.

소설에서도 나타나듯, 현 중국 은 천안문 사태가 나타난 바와 같이 친안문 계급투쟁으로 부르 조아 의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노 선과, 동소평의 '백묘혹표'처럼 경제개발과 사회개방을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는 노선 갈등의 연 속선상 인정처럼 보인다.

(오세운 記者)

91학년도 1학기 V.O.U. 방송 편성 안내

아침

서울캠퍼스

월	화	수	목	금	토
8:30	캠퍼스로 가는 길				
9:00	뉴스				
9:55	아침의 산책				

낮

12:50	뉴스				
1:05	캠퍼스신호등				
1:25	문화 스케치				
1:50	임을 위한 행진곡				
2:05	보도기획	우리가각	한낮의	고향광	V.O.U.
2:25	여보세요	우리가각	음악편지	25시	기자적
2:50	잠깐만요	우리가각	음악편지	25시	기자적

저녁

16:40	종합뉴스				
17:10	예술의 샘터	소리와 공간	기획 시리즈	그날이 오면	문화의 광장
17:25	클래식 가든				
17:30	사색의 길				

수원캠퍼스

월	화	수	목	금	토
09:00	푸른 날개짓 창공을 향하여				
9:20	V.O.U. 캠페인				
9:30	뉴스				

12:30	뉴스와 해설				
13:00	음악이 있는 우리				
13:05	취재스케치	V.O.U. 기자적	V.O.U. 리포터	열린 소리	대학연합 통신
13:15	한계사상	V.O.U. 기자적	V.O.U. 리포터	열린 소리	대학연합 통신
13:25	마이크 테스트	사람 사람들	서천리 네트워크	현장 스케치	대화의 광장
13:30	뉴스				
13:40	V.O.U. 캠페인				
13:50	명곡의 선율	우리가각	V.O.U. 소극장	V.O.U. 소극장	명곡의 선율
14:15	오늘의 만남속에서				

V.O.U. 수습 방송요원 선발 안내

(서울캠퍼스)

- 본 대학의 소리 방송국에서는 1991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제39기 수습 방송요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분야:아나운서, 엔지니어, 프로듀서, 보도기자
2. 전형방법:▲1차 시험
○공통과목:일반상식, 작문
○전공과목:아나운서:음성테스트, 엔지니어:오디오 상식, 프로듀서:음악상식, 작문, 보도기자:기자적, 논문
▲2차 시험-면접
3. 원서 교부 및 접수-오는 3월 12일까지 대학의 소리 방송국
4. 시험일시 및 장소:1991년 3월 12일 오후3시 대학의 소리 방송국
5. 자세한 문의사항은 TEL. 961-0096이나 교내전화 00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대학의 소리 방송국(V.O.U.)

V.O.U. 수습방송국원 모집

(수원캠퍼스)

- 이 시대의 아픔을 함께하며 올바른 대학문화 건설을 위해 노력해온 저희 '대학의 소리방송국'은 방송매체 발전의 성과물인 T.V방송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새학기를 맞이하여 제12기 수습국원을 모집합니다.
- 민중지향적이고 대중적인 대학언론활동에 뜻이 있는 신입생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분야:아나운서, 엔지니어, PD, 보도기자
 - 원서교부및 접수장소:오는 3월19일까지 본 방송국
 - 시험일정:필기시험:3월19일 오후5시30분 본 방송국(시험과목:일반상식(공통), 아나운서-음성·카메라테스트, 보도-논문 PD-작문)
 - 합격자 발표:3월22일

경희대학교 대학의 소리 방송국(V.O.U.)

경희대학교 대학의 소리방송국(V.O.U.)